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2월28일 주일 설교입니다.

<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>

이사야 35:1-4 / 새찬송가 384 (통일 434) 나의 갈 길 다가도록

1.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가치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

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‘진리’와 ‘선함’과 ‘아름다움’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합니다. 피조물인 이 세상에는 거짓되고 악한 것이 가득한데 거짓되고 악한 것으로는 절대 참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아름다움이란 ‘진리’와 ‘선함’이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. 하나님의 ‘아름다움’은 세상의 온갖 거짓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‘진리’의 말씀과 세상의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‘선하심’이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. 이 아름다움이야말로 진리와 선함이 추구하는 최종목표입니다.

다윗의 평생소원이 ‘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모하는 것’ 이었는데 25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기를 소원합시다(시27:4).

2.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

또 오늘 날 이 세상은 일시적이면서 진리라고 속이는 거짓된 사상이나 이념으로 가득하여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.

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정탐군을 재앙으로 죽이시고 난 후 ‘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인도하실 땅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세대는 반역한 죄를 지고 소멸될 때 까지 사십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’고 말씀하셨습니다(민 14:31-33).

이런 광야 같은 세상의 거짓을 몰아내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것은 오직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(시119:105).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빗나간 길로 갔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제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.

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올 한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. 혹 안

좋은 것들이 있었다 해도 선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.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‘보복하여 갚아주신다’고 말씀합니다(사35:3,4).

3.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시다

오늘 본문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란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곳으로 진리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. 사막이란 생명을 주는 물, 즉 선이 부족한 곳을 말합니다.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곳에 처한 우리에게 진리와 선을 심어주시고 결국 아름답게 만들어주십니다(사43:19).

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진리의 말씀과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마무리해야 합니다(사35:1-4).

또한 우리가 비옥한 땅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평야가 아닌 광야에 있을 때 비옥한 땅이 아닌 건조한 사막에 있을 때 진리와 선하심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름다우심을 이루십니다.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(시12:2,3)!

< 적용 & 실천 >

우리의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? 좋은 일은 좋은 일에 감사, 안 좋은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에 감사,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!